

전남 서부권

MOU 55건 성사는 22건...1조1127억중 2179억 실현

합평군 요란만 떤 '투자협약'

생색내기식 체결 방지 제도적 장치 필요

합평군의 투자협약(MOU) 체결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투자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충분한 사전조사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합평군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기업유치 등을 위해 맺은 업무협약 55건 가운데 22건은 실현됐고 나머지 17건은 추진중...

력 낭비와 생색내기식 투자협약(MOU)체결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8월 400억원 들어 암 요양병원을 건립한다고 투자협약(MOU)을 체결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또한 500억원을 들여 수상관광호텔 및 해양 마리아 시설사업을 추진한다는 투자협약 컨소시엄도 백지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사조그룹과 체결한 760억원대 투자협약도 학교면에 있는 A 육가공 공장의 인수가 무산되면서 사업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처럼 투자협약 당시에는 바로 지역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 급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처음 의도와 다르게 기업규모를 축소해 투자

하는 등 현실적인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씨는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고 정확한 정보와 검토를 거쳐 신중한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군의 투자협약체결 이행실적이 부진해 생색내기용 투자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제를 제정한다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합평군 관계자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면 군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해 투자협약(MOU)이라도 체결해 우선 약속이라도 하자라는 뜻으로 협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의 사정 등 여러 조건으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투자협약 건수에 비해 실현가능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가래떡에 오색 무지개 떴어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합평군의 한 방앗간에서 주민들이 천연재료로 색을 낸 '오색 가래떡'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오색 가래떡'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에 복분자·쑥·백년초·간·흑미·밤호박·자색 고구마 등 7가지의 기능성 농산물을 첨가해 만든다. /연희뉴스

'과산위기' 해남수협 흑자났네

지난해 중앙 지원없이 순이익 5억원

'전국 최하위 조합'이라는 오명을 쓴 해남수협이 회생 기틀을 마련했다. 해남수협은 몇해 전까지만 해도 수협중앙회 지원을 받으며 과산위기를 맞았지만 전 직원이 팔팔 뭉쳐 잉여금을 내는 등 흑자조합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결산결과 중앙회 지원없이 다음연도 사업손실 대비 적립금 14억 5000만원을 마련하고도 5억원의 잉여금을 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성기자 dia@

올해는 예금 2000억원, 대출 1750억을 달성하는 등 금융사업 확충과 함께 20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 냉동저장고를 4000여㎡ 규모로 확충하는 등 시설투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성주 조합장은 "자산 3000억원 달성과 전 직원이 매일 고객 3명을 면담하고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등 각도의 노력 끝에 흑자조합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성기자 dia@

야생동물 밀렵 집중단속 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

내달까지...다도해 서부사무소 목포항민청 김수용 등대관리장

국립공원 다도해해상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방지를 위해 다음달까지 야생동물 밀렵행위 집중단속 및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사무소는 야생동물 포획과 밀렵, 총포 휴대, 밀렵도구(물무·뿔·뺨그물 등) 설치 등 밀렵과 관련된 모든 행위와 함께 자연자원을 유출하는 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밀렵행위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 등 엄중처벌(형사입건·과태료 부과·면허취소 등) 할 예정이다. 국립공원내 밀렵행위 적발시 자연공원법 제27조, 제82조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 문의·신고(국번 없이 128·061-284·9115)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김수용(50) 등대관리장이 최근 '2010년 공직복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관리장은 지난 1984년 가거도 등대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6년 동안 총도 등 전남지역 10여 곳의 섬지역 유인등대에서 근무해 왔다. 지난 2008년에는 당사도 등대장으로 근무하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당사도항 개발 및 방파제 축조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지자체와 지역민의 가교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섬 주민들의 고장이 난 가전제품과 가옥 보수를 돕는 등 소외된 도서지역 주민들의 숨은 일꾼으로 일해왔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우리 수산물로 건강 선물하세요

목포해양과학원 김·전복 등 4종 선정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소(소장 이항복)는 설 명절을 맞아 서남권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특산 수산물 4종을 선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번 선정된 수산물은 김·전복·조피볼락·홍어 등 4종이다. 김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이다. 조피볼락은 간기능 향상 및 피로 회복 등에 효과가 있는 황아미노산의 함량이 다른 어류에 비해 높으며, 전복은 아르기닌(Arginine) 함유량이 높아 시(視)신경의 피로에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고 자양강장

에 매우 좋다. 홍산홍어는 '생선이력 추적제'의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생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더욱 믿고 구입할 수 있다. 이항복 목포지소장은 "서남해역은 지역특성상 갯벌이 잘 발달돼 있어 수산물역시 영양면에서 더욱 우수하다"며 "설 선물로 실속있고 품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많이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김> <전복> <조피볼락> <홍어> 목포해양과학원 김·전복 등 4종 선정

전 북

LED 조명 속성재배 익산 식물공장 준공

무공해 재배...기간 30% 단축

익산에 LED(발광다이오드)를 광원으로 이용해 채소를 생산하는 첨단 식물공장이 들어섰다. 익산시와 전북대, 전북대학교는 지난 21일 전북LED융합기술 지원센터(전북대 익산캠퍼스) 세미나실에서 현대백화점 계열의 종합식품 기업인 (주)현대그린푸드와 녹색성장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ED 식물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주)현대그린푸드 오홍용·장호진 대표이사, 전북대 서거석 총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한수 익산시장,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장, 한국조명연구원 공영식 원장, 전북테크노파크 송형수 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주)현대그린푸드는 공동연구 개발을 통해 LED식물공장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대형 플랜트형태의 식물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1월 지식경제부 주관

의 'LED 특화 클러스터조성사업'에 선정된 전북LED융합기술 지원센터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국비 250억원을 포함해 총 325억원을 투입, '농생명 LED융합 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사업을 펼친다. LED 식물공장은 전국 최대인 376㎡규모로 LED조명시설을 이용해 다양한 식물을 친환경적으로 속성재배한다. 식물공장은 LED와 환경제어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식물에 맞는 재배조건을 만들어 재배기간을 2분의 1~3분의 1 단축시키며 무공해 재배가 이뤄진다. LED 식물공장은 우선 상추와 잎들깨, 청정채, 치커리 등 업체를 생산, 현대그린푸드에 납품하며 앞으로 한약재 등 고부가가치 약용작물도 재배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LED 식물공장은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 고안전, 기능성 식품의 대량공급 체계를 구축,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좋은 물건 나누고 이웃도 돕고... 순창군 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김영주)는 지난 21일 순창을 재래시장에서 재활용품 나눔장터 행사를 가졌다. 센터는 행사 수익금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장애인·조손가족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순창 '가인연수관' 사범연수 인기

강의실·세미나실 등 갖춰 예약 줄이어

순창출신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1887~1964)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문을 연 '대법원 가인연수관'이 전국 최고의 사범연수 장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순창군 북흥면 담동리에 위치한 대법원 가인연수관은 116억원을 투입해 부지 8만303㎡에 연면적 5203㎡ 규모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3일 가인 연수원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전체 세미나를 포함한 중앙과 전국 지방법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를 20여회 개최해 8500명이 다녀갔다. 연수관은 대강의실과 중강의실·세

미나실·가인 전시실을 비롯해 식당·탁구장·휴게실 등 연수생 편의시설과 34개의 객실(중형 30·대형 4개)을 갖춰 법원 연수시설로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이나 지방을 포함한 법원 세미나 예약이 줄을 잇고 있으며, 3개월 전에 예약해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연수관내에는 김병로 선생을 기념하는 유품과 판결문, 사법역사를 담은 각종 자료들이 전시돼 현장체험 학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순창군은 가인연수관에 이어 북흥면 중리마을에 있는 선생의 생가터를 복원할 계획이다. 생가는 한국전쟁으



로 인해 마을 전체가 전소되면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나 터는 남아 있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아 안채와 행랑채, 사랑채 등과 주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강인형 순창군수는 "생가가 복원되면 가인연수관을 비롯해 주변 훈몽재와 전봉준 장군이 잡힌 피체지 등을 연계한 역사탐방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단 신

군산보건소,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보철사업

군산시 보건소(소장 이재문)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어르신들 중 선정된 156명에게 무료 노인치보철사업(틀니)을 실시한다. 시 보건소는 이번 사업을 위해 31억4960만원의 예산을 확보, 다

음달에 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시술 및 사후관리(1년)를 실시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각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지소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063-460-3242) /전북취재본부=박희성기자 nogusu@

임실 소하천 정비 63억 투입 6월 완공

임실군은 올해 홍수 등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에 62억7700만원을 투입해 6월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다. 올해 정비대상은 ▲신령 아치천과 가덕천 ▲신덕 금당천과 물염천 ▲운암 사당천과 여시천 ▲

오수 오촌천 ▲관촌 서산천 등 8개지구(총길이 5150m)이다. 이와 함께 군은 총 3.2km의 신평 원천지구와 성수 오봉지구의 침수 및 유실 위험지역에 교량과 보 등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서은종기자 seo@

김제 관내 중소기업 육성 60억 지원

김제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60억원을 지원한다.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김제시에 분사를 두고 공장등록해 가동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1년상환(필요시 1년연장 가능) 조건으로 자금 소진시까지 최고 2억원을 융자하고, 융자 받

은 업체에 대해서는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김제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3-540-3428)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

정읍 북면 자율제설봉사대 발대

정읍시 북면 주민들이 지난 21일 자율제설봉사대를 구성했다. 대형 트랙터를 보유한 주민 20명으로 조직된 봉사대는 마을안길과 고개길 등 상습 노면결빙이나 사고위험이 높은 제설 취약구

간을 지정해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북면사무소 관계자는 "민·관 합동 제설체제를 구축해 예방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민원 24' 서비스 이용 25% 증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온라인을 활용해 민원서류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전주 '민원 24' 서비스 발급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원 24'의 민원발급 신청건수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6만2517건으로 전년 대비 25%

가 증가했다. 전체 5000여 종의 민원업무 중 60% 정도인 3020종의 민원을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과 지적도 등 1208종의 민원은 민원인이 프린터 등을 이용, 직접 출력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